"探石_탐석" by 이정석

찾을탐; 깊이연구하다/찾다/더듬어찾다/엿보다
탐석; 마음에 드는 돌을 찾아 손질하고 다듬어 수석(壽石,水石)의 반열에 올리는 행위

B-E Director 최주연

작가에게 재료란 작품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작가의 아이덴테티를 확립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무엇이 되어 가는 과정에는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도자기의 원천이 되는 흙 혹은 돌가루가 물과 혼합되어 도자기가 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이번 전시의 주제어를 찾는다. 돌(Material)에서 출발한 도자기의 재료가 다시 돌(Art Work)이 되는 재료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탐석(探石)을 주제로 전개한다.

Artist 이정석

도자기점토는 원래 풍화된 돌에서 나오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인위적으로 점토 원래의 모습인 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도자 프로세스에서는 흙 속에 존재하는 물의 함유량(수분)이 매우 중요하다. 도예가는 흙을 수분의 조절로 제작, 가공, 장식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이를 건조(상온) - 초벌(950° c) - 재벌(1250° c)이라 한다. 도자의 역사는 연질의 돌을 분쇄하고 흙을 만들어 사람의 손으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여 불을 통해 연속성 있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다. 즉, 돌을 부수어 물을 첨가하여 점토를 만들고 불로 흙의 수분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고온에 녹는 방수피막을 입힌 도구로서의 돌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류의 이러한 실험과 연구는 좀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단단한 경질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었다. 과거 17세기 유럽은 경질의 도자기 제작기술을 연금술과 동일시했다. 당시 유럽인은 동양 도자기를 "동양의 하얀금"이라 부르며 부와 예술적 지식의 척도로 보았다.

가공된 흙, clay을 다시 돌, 石로 되돌리는 탐석 프로세스(성형-건조-유약입힘-1차,2차,3차 소성)를 통해 흙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정리한다. 도자기제작의 연금술의 흔적을 분류하고 기록하면서 人工石을 만든다.